

2010.10.18 미래정책연구실

□ 미국, 글로벌 식량위기 재연 우려

1. Financial Times (2010.10.11) 주요 내용

- 옥수수 가격이 지난 1973년 이후로 1일 최고 상승폭을 기록해 2007~2008년에 나타났던 글로벌 식량위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음.
- 지난 11일 시카고선물거래소(CBOT)에서 거래된 옥수수선물가격은 전날대비 8.5% 급등함. 이날 옥수수가격의 급등은 지난 8일 미국 정부가 옥수수 수확량 전망을 하향조정하였기 때문임.
 - 농무부는 올해 옥수수 수확량 전망치를 지난해 131억 부셸에서 127억 부셸로 하향조정함. 또한 향후 몇 개월 동안 미국 옥수수 재고량은 1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함.
- 농무부의 옥수수 수확량 하향조정 이후, 옥수수 가격은 2일 동안 12.7%까지 급등함. 분석가들은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것에 따라 공급량에 맞춰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함.
 - JP모건 농업상품분석가인 Lewis Hagedorn은 “시장은 가능한 모든 수요를 줄여야 한다”고 주장함.
- 최근 미국달러의 약세도 곡물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있음.

<밀, 대두, 면화 다른 곡물가도 상승>

- 옥수수 가격의 급등으로 다른 곡물가격도 급등함.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밀과 대두의 선물가격은 각각 28%, 47% 급등하였으며,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면화선물가격은 1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.
 - 헤지펀드와 투자자들은 곡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함.

<옥수수 가격 급등으로 육류가격 급등 조짐>

- 옥수수 수확량 전망의 하향조정으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등의 육류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.

- 미국축산협회의 경제학자 Gregg Doud는 옥수수 수확량 감소전망으로 인해 옥수수 사료를 사용하는 축산 농가의 육류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며,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함.
- 실제로, 미국에서 쇠고기 가격은 지난 8월 22일까지 3개월 동안 6% 가까이 상승하였고, 돼지고기 가격은 7% 이상 오름. 반면 닭고기 가격은 2% 정도 소폭 상승함.
- 옥수수 가격 급등은 닭고기 생산업체들에게도 타격을 줌.
 - 미국의 식품업체 타이슨 푸드의 주식은 지난 8일 8% 하락한 15.01 달러로 마감됨.
- BB&T 캐피탈 마켓의 농업분석가인 Heather Jones는 “많은 식품 생산 업체들은 미국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그동안 가격인상이 쉽지 않았지만,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가격부담이 갈 수 밖에 없을 것”이라고 주장함.
 - 또한 Heather Jones는 “세계적으로 소 사육규모가 줄어들고, 사료 가격이 상승하여 쇠고기 공급량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”라고 밝힘.

<에탄올 생산업체에 할당제 실시 가능성>

- USDA에 의하면, 미국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35%를 소비하는 에탄올 생산에 할당제(rationing)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음.
 -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치가 옥수수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임.
 - 축산업계와 식품업계는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수요 증가로 이미 부셸당 6달러에 접근한 옥수수 가격이 결국 식재가격과 사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함.

2. 시사점

- 상대적으로 높은 밀 가격으로 대체재인 옥수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농무부의 옥수수 수확량 감소 전망은 옥수수 시장가격을 급등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관찰이 필요함.
- 특히, 국제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사료곡물 확보 등 수입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.
 - 또한 사료곡물의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파급 영향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가 필요함.